

배 포 일 시	2023. 2. 2.(목)			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도시실	책임자	과 장	이진철 (044-201-3755)
	건축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조관우 (044-201-3758)
보도일시	2023년 2월 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.(목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국민의 스마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스마트+빌딩 활성화에 착수

- 건물 로비를 넘어 거실 안까지, 라스트인치(Last-Inch) 서비스 구현 -

- ☐ 원희룡 장관, 스마트+빌딩 얼라이언스 출범식 주재
- ☐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활성화 로드맵 마련
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·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「스마트+빌딩 얼라이언스」가 2월 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.

* (일시/장소) '23.2.2(목) 14:00~15:20 / LG 사이언스파크(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0로 30)

** (참석) LG사이언스파크, LG공간연구소, 네이버클라우드,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, 이지스자산운용, 코가로보틱스, 현대자동차, 현대엘리베이터, 서울특별시 부시장, 서대문구 구청장, KBS, 건축공간연구원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한국로봇산업진흥원, LH 등

- ☐ 스마트+빌딩은 일상생활의 수요 및 기술/서비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춘 건축물로 도심항공교통(이하 UAM),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, 구조, 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.

- 첨단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인 스마트+빌딩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면, 건물 안과 밖에서 각종 서비스가 끊어짐 없이 제공되는 라스트인치 서비스(Last-Inch Service)를 통해 국민일상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라스트마일서비스는 "환승·물류센터 ⇄ 건물 앞 도로"의 모빌리티·배송 서비스를 의미, **라스트인치(Last-inch)**는 외부로부터 건물 안 모든 공간에 연계되는 seamless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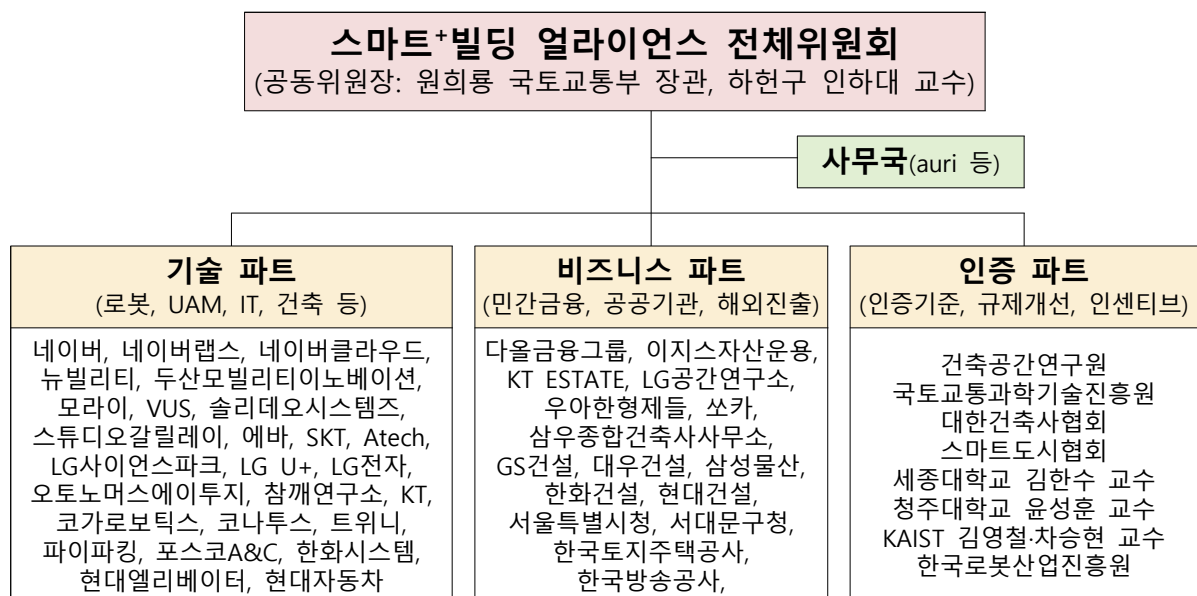
- 또한, UAM을 활용하여 경찰·소방관 등이 재난 현장에 교통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방송국에서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재난 방송을 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+빌딩을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경우, 국가 재난 대응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한편, 로봇, UAM(’25년), 자율주행(’27년)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건축환경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함으로써, 공간·플랫폼 환경 리모델링 등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.

- 향후 건축물을 첨단기술 지원 인프라로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·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조기 상용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여하는 기업과 정부의 공통된 시각이다.

□ 이번에 출범하는 「스마트+빌딩 얼라이언스」(이하 얼라이언스)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상용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여 국민의 스마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.

- 얼라이언스 공동위원장은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맡았으며, 로봇, 도심항공교통(UAM), 자율주행, IT, 건축,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, 청년,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.



- 특히, 민간 기업, 전문가 및 청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민간이 선도모델(스타프로젝트)을 제시·이행하면 정부는 제도개선, 정부 투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.
- 얼라이언스는 기술, 비즈니스, 인증 3개 분과로 구성되며,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필요사항을 발굴하고, 건축물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R&D 사업과제 발굴도 협업할 예정이다.
 - 출범식을 시작으로 얼라이언스는 약 6개월 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스마트⁺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초안을 마련하고,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된 후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모빌리티, 로봇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플랫폼인 스마트⁺빌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이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- “국민이 일상생활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체감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, 기업과 청년, 민간전문가들을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진철 (044-201-3755)
		담당자	사무관	조관우 (044-201-3758)
			주무관	김기훈 (044-201-3766)
<공동>	건축공간연구원 건축정책본부	책임자	본부장	김영현 (044-417-9619)
		담당자	센터장	남성우 (044-417-9693)